

언론학 교육에서 이론과 실제

송우천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근래에 들어 각급 교육기관의 언론관련 학과가 급격하게 증설되고 등록학생수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언론학 교육에 대한 논의와 논란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언론학 교육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기되고 있는 논의는 언론학 교육의 내용에 대한 언론계와 전공학생들의 비판과 함께 급속하게 발전,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초래한 변화들의 수용에 있어서의 학문적 한계 등으로 무엇을 왜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언론학의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에 일관하고 있는 몇 가지 대립되는 개념들, 예를 들면 기능 대 지식, 훈련 대 교육, 어떻게 대 왜, 전문적 대 학문적, 그리고 이론 대 실제 등의 구분은 이성적인 학문적 분석에 의거한 구분이라기보다는 전 시대적인 사회계층 구분이나 집단적 이해의 투영이라는 측면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학문 중심적이며 이론 지향적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 언론학 연구와 교육이 안고 있는 과제는 이론 체계의 구축과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그리고 교육 방법의 구현에 있어서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키워드: 한글, 언론학, 신문방송학, 이론교육, 실무교육]

1. 한국 언론학 교육의 현황

1950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에 신문방송학이 새로운 학문으로 도입된 이후 근래에 이르러서는 4년제 대학에만 75개 대학에 86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그 이외에도 2년제 대학에서도 20개 대학에 26개 학과가 있으며 1999년에는 37개 대학 38개 학과에서 2천여 명의 졸

업생을 배출했으나 2000년 이후에는 그 숫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조동시, 1999, 30쪽).

그러나 대학에서의 교육이 이러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신문방송관련학의 학문적, 교육적 성과에 대해서는 “양적인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질적인 개선방향을 찾아 실천하는 데 대단히 소극적” 이어서 “좋은 언론인과 교수요원”을 배출하는 데 모두 실패했으며 “우리나라의 언론학 연구와 교육은 현재 심각한 혼돈 상태에 빠져있다”고 평가되고 있다(서정우, 1999, 11쪽). 그리고 이러한 언론학 연구와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은 원로학자들을 포함하는 학계의 인사들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언론을 전공한 학생, 언론 현업 실무진에 의해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먼저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며 기본적인 문제는 무엇을 연구하고 가르쳐야 하는가와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언제까지 내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적당한 기회에 미리 ‘명퇴’라도 하는 것이 떳떳한 일이 아닐까?…… 요즈음 특히 학부 1학년 학생들에게 ‘커뮤니케이션 개론’을 가르치고 있노라면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 그 이유는, 그간에 신문이나 방송 등의 제작방법이나 기술 등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책 내용이 거의 맞지 않기 때문이다(차배근, 1979, 44쪽).”

차배근의 이 언급은 한 교수로서 개인적인 심경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한 중진학자가 본 우리나라 언론학의 학문으로서의 정체성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의 종합적인 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학이 무엇을 연구하고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한 논란은 그 동안 폐쇄적 환경 속에서 비교적 안정적 성장을 해 온 우리나라 학계로서는 크게 문체가 되어오지 않았으나 1990년대에 들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도입과 확산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또한 각 대학에서의 관련학과와 신설로 빠르게 이어지면서 여러 면에서 혼란의 양상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우선 각 대학의 전공 학과 명칭에서도 그 혼란의 일단을 찾아 볼 수 있게 되었다. 요즘 찾아볼 수 있는 학과 명칭들을 살펴보면 광고홍보 관련 학과를 제외하더라도 신문방송학과, 언론매체학과, 매스콤학과, 매체정보학과, 언론정보학과, 언론홍보학과, 정보사회학과, 방송산업학과, 방송정보학과 등을 비롯해서 학부제 시행과 함께 나타난 명칭으로는 정치언론학부, 커뮤니케이션학부, 언론정보학부, 언론학부, 언론영상학부, 언론광고학부, 경영광고학부, 영상정보학부, 언론홍보심리학부, 언론홍보영상학부, 언론심리학부, 언론정보문화학부, 언론광고사회학부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서정우의 지적처럼 이러한 다양한 전공명칭은 물론 소속대학이나 학위명칭에서의 일관성의 결여를 보여주는 것으로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의 혼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997, 39쪽).

이러한 언론학 연구와 교육에서의 혼란은 외부로부터의 비판으로도 이어져 한 방송사의 간부는 “신방과 졸업생들에 대한 선배들이나 일선 데스크의 평가는 의외로 비판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방송사에 입사한 1-2년 차 기자들도 “신문이나 방송의 메카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부 교수들로부터 배웠던 많은 이론들이 취재현장이나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전혀 통하지 않았다는 점을 실감”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은 대학교육이 별 도움이 안 되는 주된 원인으로 “학계와 실제 언론계와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김인규, 1999, 13쪽). 김창룡은 신문방송학과 출신들의 언론계 진출이 부진한 원인으로 이론 중심의 대학교육을 지적하면서 “신방과 출신들 뽑아봐야 소용없다. 언론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쭙잡게 배워서 실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논리력 면에서는 법대나 상대생들이 낮고 어휘력 면에서는 영문과나 국문과 학생들이 훨씬 뛰어나다”는 언론학 교육에 대한 언론사 간부들의 부정적 인식을 소개하고 더 나아가서 대학교육의 부실은 대학 밖에서 “예비언론인 교육기

관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하고 있으며, 또한 ‘고급 사교장’화한 일부 언론대학원의 모습은 학부의 “신문방송학과 위상을 더욱 흔들어 놓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김창룡, 1997, 53-56쪽).

한편 언론관련학을 전공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대학졸업생들은 우선 저조한 관련 직종으로의 취업을 때문에 실망하고 다음으로는 교육받은 내용의 현실적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오수정, 1999, 20-25쪽). 신윤진(1998, 67-71쪽)과 오수정은 언론학과 입학을 위한 입시경쟁률과 수학능력점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반면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전공학생수의 증가를 감안할 경우 오히려 줄어든 것이라고 보고했고, 오수정은 실습교육까지 받고 언론사에 입사하더라도 언론학 전공이 “오히려 불리”하다고 생각하거나 “뉴스감각을 키우고 기사를 보는 눈, 평가할 줄 아는 시각을 갖도록 (하는) 지적 훈련”이나 현실감 있는 윤리의식의 교육이 보다 더 절실하다는 견해를 소개하면서 “학생들의 요구, 신방과 출신 언론인들이 말하는 언론학 교육의 문제, 그리고 언론사 채용담당자들의 요구를 알아보는 종합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언론학의 정체성의 문제, 교육목표와 내용의 문제 그리고 졸업생들의 사회진출의 문제 등은 우리나라에서는 근래에 들어 논의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사실은 언론학이 새로운 학문으로 등장한 20세기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 없이 이어져온 언론학 교육과 연구에서 이론과 실제에 대한 논란과 관련된 것들이었으며 또한 이러한 문제들은 서로 각각 서로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본질적이며 상호 연관되어진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언론학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그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해서는 먼저 언론학 연구와 교육의 역사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어떠한 상황과 배경에서 논의되어 왔고 또한 어떻게 변모되어 왔는가를 분석하고 나아가 이러한 분석을 기본으로 해서 급변하고 있는 현실에 적합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언론학 교육의 기본적 성격

1) 교육의 기본 목적

대학에서 언론학 교육이 처음으로 시작된 미국의 경우 언론인에 대한 전문적 교육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170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가장 잘 알려진 초기 주창자의 한 사람으로는 인쇄업을 하던 벤자민 프랭클린으로 알려지고 있다(Dickson, 2000, p. 1). 프랭클린은 당시의 많은 인쇄업자들이 비방, 중상하는 글들을 출판하는 것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바로 언론의 자유를 악용해서 개인적인 비난이나 비방, 중상을 하는 것”(Frasca, 1995, p. 5)이라고 생각했고 따라서 그의 사명은 “도덕적 덕목들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이 평생을 바쳐 구축하려고 애써온 건국 이념의 기본이 저속한 언론에 의해 무너지는 위험을 극복”(p. 8)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그는 비록 성공적이지는 못했지만 1780년대 중반 젊은 인쇄업자들과 공동으로 이 신념을 실천하기 위한 언론인 행동강령을 만들었다(p. 26). 이러한 그의 노력은 그 후 이어지는 언론학의 대학 교육 제도화를 위한 노력의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나아가서 *Gazette of the United States*의 편집인 페노는 1799년 당시의 신문들은 “그 동안 사회를 오염시켜온 출판물들 중에서 가장 천박하며, 거짓투성이이며, 비굴하며, 부패한 출판물”이라고 비판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자질을 갖춘 언론인의 양성을 위해 대학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했고(O'Dell, 1935, p. 1) 이러한 주장은 “언론인이 보다 더 교육을 받아 윤리적이 될수록 언론의 질이 향상될 것”(Dickson, 2000, p. 3)이라는

믿음을 근거로 180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상당 기간 동안 이러한 주장이 이어져 왔음에도 그 실현이 어려웠던 것은 “미디어 산업과 미국 대학교육의 구조”(Dickson, 2000, p. 2) 때문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인쇄는 도제식으로 전수되는 기능으로서 언론은 전문직이라기보다는 기능직이라는 일반적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며, 또한 교육자들이 학생들에게 전수시키고자 하는 기본적 가치들이 전문적 기술이나 지식보다는 당시의 대학교육의 전형이었던 고전적 인문교육의 목표인 도덕성(morality), 세련됨(refinement), 성숙함(maturity), 고결함(respectability) 등이었던 점들이 장애요인이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Mirando, 1995, p. 4). 그러나 남북전쟁 이후 18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신문이 보다 전문적인 대중언론매체로 자리를 잡아가고, 또한 대학도 미국 사회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보다 실용적이며 전문적인 지식을 교육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을 받으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대학이 보다 실용적인 내용을 교육할 수 있도록 변모를 촉진한 것은 남북전쟁 이후 1862년에 제정된 <모릴연방토지공여법>(Morill Federal Land Grant Act of 1862)으로 평가되고 있다(Dickson, 2000, p. 3). 이 법에 의해서 모든 주에는 최소한 한 개의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토지가 제공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설립되는 대학에서는 “대학의 주요 목적이, 기존의 과학적이며 전통적인 학문을 포함해서 농업이나 기계 기술과 같은 분야의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었다(Rudolph, 1962, p. 252). 특히 미국 중서부와 서부에서 이 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주립대학들은 “개척자적 민주주의와 물질주의가 지지하는 실용 위주의 대중교육기관”(Rudolph, 1962, p. 277)으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보다 새로운 학문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터전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 대학의 커리큘럼에 전문직업교육을 결합시킨 본격적인 언론학 교육에 대한 반응은 “언론학 교육을 위한 유일한 학교는 바로 우수한 신문사의 사무실뿐”(O'Dell, 1935, p. 30)이라거나 “수영학교가 가

능한 것처럼 어떤 학교도 가능하겠지만 언론학 교육을 위한 특별한 학교를 위한 여지는 없을 것,”(p. 32) 또는 “교육과정의 폭을 생각한다면 언론인에게 요구되는 원칙과 정보의 교육을 위해서는 대학 그 자체가 언론학 학교”(p. 34)라는 등등의 비판적 견해도 많았다. 그러나 호의적인 견해도 적지 않았으며 특히 대표적인 예로는 1890년대 엘로저널리즘의 주역의 한 사람이기도 했던 조셉 폴리처로 “비아냥대는 것이 신문기자들의 습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깊이 생각해본 결과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O'Dell, 1935, p.42)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폴리처는 더 나아가 “직업과 학문을 결합시켜 언론분야를 전문화시키려는 노력의 주역”(Dickson, 2000, pp. 9-10)을 맡게 되어 1892년에는 컬럼비아 대학에 저널리즘 스쿨 설립을 위한 기금 제공을 제안하기에 이르렀으며(O'Dell, 1935) 그의 계획은 그가 제안한 저널리즘 스쿨을 통해서 “전 대학의 인문학 교육자원이 저널리즘 스쿨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Wilcox, 1959, p.3)이었다. 폴리처가 생각하고 있던 언론학 교육과 언론학 대학의 역할은 “언론은 중요하며 지적인 직업들 중의 하나 라는, 아니라면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이며, 현재 이 직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나아가서 앞으로 종사할 사람들을 실질적 방법으로 마치 법조인이나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과 같이 고무, 고양시키며 그리고 교육시키는 것”(Dennis, 1988, p. 11)이었다. 1903년 폴리처는 죠지 호스머 박사에게 요청해서 “언론인 양성: 왜 전문 직업인 학교가 필요한가”라는 유인물을 만들어 컬럼비아 대학의 버틀러 총장과 하버드 대학의 엘리얼 총장에게 전달했는데 이 유인물에서 언급된 언론학 대학(Journalism School)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언론인(Newspaper man)은 보다 전문적 직업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데, 첫째로는 풍부한 정보, 대부분은 이미 대학교육 과정에 포함 되어진 역사, 지리, 정치학, 국제학, 경제학 그리고 특히 영어에 대한 공부 등이며, 둘째로는 아직까지는 신문사 밖에서는 배울 수 없는 특별한

정보를 갖추는 것이다. 이 지식은 분석되고 분류되고, 체계화되어져서 최소한 초기에는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지 못하므로 언론인 자신들에 의해서 강의로 전달되어져야 할 것이다(O'Dell, 1935, pp. 102-103).

폴리처는 자신의 생각을 반영시킨 교육과정을 제안했는데 그 주요과목들은 “문체(style), 언론법, 윤리, 문학, 진실과 정확성과 문헌참조법, 언론인을 위한 역사, 사회학, 경제학, 공공의 적(the enemies of the public), 중재(arbitration), 통계학, 외국어, 과학개론, 신문연구, 아이디어의 힘(the power of ideas), 언론원칙, 신문출판, 뉴스”(Pulitzer, 1904) 등으로서 “주로 편집국 업무를 중심으로 한 언론교육안이었으며 따라서 신문제작과정 전반, 광고, 배달 판매(circulation)나 그 밖에 관련된 분야는 제외된 안”(O'Dell, 1935, pp. 93-94)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폴리처의 제안을 받았던 하버드 대학의 엘리얼 총장은 호스머에게 보낸 답장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교육과정을 포함시켜 전달했는데 그의 안은 “편집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영업국(business office), 광고국, 공무국의 업무까지 포괄하는 안”으로서 “신문경영(조직, 기능, 업무), 신문제작(제판, 인쇄 및 기타 기계설비), 언론법, 언론윤리, 언론역사, 신문 문체[literary forms of newspaper(approved newspaper style and usage)]”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폴리처의 안과 다른 점은 배경과목들은 언론 대학 내부에서가 아니라 다른 학과의 과목에서 수강하도록” 하는 것이었다(Dickson, 2000, p. 11). 그러나 엘리엇의 교육과정안은 신문의 경영이나 상업적 요소들을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했던 폴리처에 의해 컬럼비아 대학의 교과과정으로 채택되는 것이 거부되었다(Lee, 1918, p. 13).

폴리처와 엘리얼의 교육과정안은 이후 각각 “인문학(broad liberal education)” 중심의 언론교육안(Pulitzer)과 “전문기능교육(specialized technical education)” 중심의 언론교육안(Eliot)으로 불리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언론학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Wilcox, 1959, p.

3). 그러나 이러한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의 구분은 정당치 못하거나 (Dressel, 1960, p. 23) 정확한 것도 아니며(Wilcox, 1959, p. 3) 때로는 “극적 대비만을 위해 사실을 왜곡한 것”(Jandoli, 1957, p. 64)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교육과정의 내용에서는 상이점이 있으나 공통적인 기본목적은 보다 자질을 갖춘 전문언론인의 양성이라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성에 대한 상당 기간동안의 논의와 논란이 계속된 후 시작된 본격적인 대학에서의 언론학 교육은 1912년에 이르러서는 3개 대학에서 전문직 대학(professional school)으로(Columbia, Marquette, Missouri), 7개 대학에서 학과로(Iowa State, Kansas, Kansas State, Notre Dame, Oregon, Washington, Wisconsin) 개설되어 있었고 이밖에도 약 20여 개의 대학에서는 대부분은 영문학과에서 언론학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Dickson, 2000, p. 15). 주로 현업인들의 주도로 시작된 초기의 언론학 교육은 따라서 그 기본적이며 직접적 목적이 보다 훌륭한 자질을 갖춘 언론인을 양성하는 것이었으나 대학의 체제 속에 수용되면서 다소 다른 모습을 갖출 수밖에 없었다. 케리는 그 배경과 과정의 본질적 특성을 다음과 말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직 대학(professional school)의 개설은 언론학 교수들과 주의 출판협회가 제휴를 이루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 제휴는 언론학을 수용하고 있던 영문학과들이 새로운 커리큘럼의 개발과정에서 언론학 교수들을 차단시키기 이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수십 년 동안 언론학 대학의 설립을 주장해 온 편집자들과는 불편한 동반관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Carey, 1978, p. 848).

케리가 지적한 언론계와 학계의 불편한 동반관계 속에서도 미국에서의 언론학 교육은 대학교육 체계 속에서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1920년에 이르러서는 전문적 교육과정을 개설한 28개 대학을 비롯해서 상당수의 대학에서는 영문학과에서 그리고 약간의 2년제 대학 등을 포함해 131개의 교육기관에서 언론학 과정을 개설하고 있었으며 이 숫자

는 1932년에 326개로 그리고 1936년에는 894개로 늘어났고, 1940년 처음으로 4년제 대학만을 조사했을 때는 542개의 대학에서 언론학 과정을 교육할 만큼 양적으로 확대되었다(Dickson, 2000, p. 17).

윌콕스(Wilcox, 1959)는 초기에서부터 1950년대까지의 언론학 교육을 시대에 따라 세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에서의 교육의 특성을 규정하였는데 그 첫번째는 1908년부터 1920년까지의 시기로 교육내용은 대체로 직업교육(vocational) 위주였으며, 두번째는 1920년대 초반부터 중반의 시기로 언론학 교육이 다른 여러 사회과학분야 지향적이었던 시기이었고, 세번째는 1930년대 이후의 시기로 직업교육 위주의 교육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뉴스에 전후의 관련상황을 포함시키는 해설보도의 등장으로 언론관련 과목이 아닌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과목들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포함하는 언론학 교과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고, 또한 마지막으로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함께 교과과정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시기로 보고 있다(pp. 4-6).

윌콕스가 구분한 첫번째 시기의 언론학 교육은 그 목적이 전문언론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어떠한 교육내용, 즉 교과과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는 서로 대립되지는 않지만 차이가 있는 플리처의 안과 엘리얼의 안이 “최소한의 기술적 내용을 포함하는 폭 넓은 교양교육안(broad cultural programs including a minimum of technical subjects)”과 “매우 실무형의 교육안(a very practical type of training)”(Sutton, 1945, p. 35)으로 구분되어 양립되고 있었다. 특히 이 구분은 “언론학 교육은 대학에서 가르쳐야 할 학문이 아니라 직업학교(trade school)에서 가르쳐야 할 훈련(training)”이라는 다른 학문 분야의 비판과 “실무현장에서 더 잘 배울 수 있는 것”이라는 일부 언론인들의 부정적 견해를 극복하고 대학에서의 위치를 확보해야 할 언론학 교육자들에게는 학문중심적(academic) 교육과 실무중심적(vocational) 교육의 대립되는 개념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언

론학 교육과정의 특성을 가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언론학은 주로 인쇄매체의 보도, 편집과 관련된 분야의 교육이 대부분이었으나 광고와 홍보 그리고 라디오 방송과 관련된 과정들도 포함되면서 언론학 교육의 범위도 그 만큼 넓어지게 되었다. 그 이유로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함께 사회가 점차 복잡화해가면서 증대되는 정보전달의 정교성(precision in communication)에 대한 요구가 언론교육의 확대의 압력이 된 것”(Wilcox, 1959, p. 7)으로 보고 있고 드레셀은 보다 구체적으로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발달, 교역, 상업, 기술관련 출판의 증가, 그리고 광고와 홍보 분야의 확대 등은 언론의 개념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서로 다르지만 관련이 있는 전문분야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Dressel, 1960, p. 31).

또한 전문 언론인의 양성을 주요 교육목적으로 시작된 언론학 교육이 교육기관의 양적 증가와 교육영역의 확장으로 이어지면서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한 문제는 언론학의 학문으로서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전문인 교육과 함께 대학 내에서의 학문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해야 했던 1908년부터 1925년까지의 언론학 교육학자들은 “학문적 존경에 대한 열망과 언론 현업의 기술적 교육(technical instruction)에 대한 요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으며”(Dressel, 1960, p. 24) 점차로 학문적 기반의 확보를 위해 “언론학 교육과정에 사회과학과의 결합이나 연관되어진 내용을 포함시키게 되었으며 일부에서는 언론학 그 자체가 바로 사회과학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Jandoli, 1957, p. 64). 1920년대의 후기에 이르러서는 “언론학 교육은 최소한의 실무적 내용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인문교육으로 생각하는 경향”(Dressel, 1960, p. 25)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고 나아가 1930년대에 들어서는 “언론학 교육의 철학은 다른 학과의 교과목을 포함하는 직업교육방식(vocational approach)에서 사회과학에 초점을 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Steiner, 1994, p. 52).

그러나 언론학 교육의 이러한 교육 철학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실무적

전문언론인 양성이란 언론학 교육의 기본적 목적에 학문적 연구, 교수 인력의 양성이라는 새로운 목적을 더해지게 했으며 이에 따른 언론학 교육에서의 보다 학문적이며 이론적인 내용의 포함은 교육계 내부로부터는 물론 외부로부터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2) 교육의 기본내용

언론학 교육에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등의 학문적 이론이 결합되고 먼저 라디오가 그리고 후에 텔레비전이 새로운 대중 매체로 등장하면서 “매스미디어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기능, 그 과정 그리고 그 구조를 의미하는” 용어로 ‘매스커뮤니케이션’이 등장했다(Wilcox, 1959, p. 7). 또한 이 새로운 매스커뮤니케이션의 개념은 “언론학에 보다 많은 원칙과 이론을 주입하고 언론학의 개념(*concept of journalism*)이 행동과학 (*behavioral science*)으로 발전된다는 의미를 갖도록 함으로서 언론학의 본질과 내용에 영향을 미쳤으며” 나아가서는 “사람들의 견해와 행동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과정과 그 효과는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도 새롭고 특히 의미 있는 연구분야가 될 것”(Dressel, 1960, p. 36)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그러나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는 기존의 언론학 교육에 사회과학적 개념과 연구방법을 접목시킴으로써 언론학이 대학 안에서의 학문적 위치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반면 다른 학문영역, 예를 들면 대인 커뮤니케이션(*interpersonal communication*)과의 경계를 더욱 모호하게 해서 학문적 일관성(Wilcox, 1959, p. 7)의 확립은 더 어려워지도록 만들었고, 또한 언론학 교육과 연구에서 이론의 비중이 높아짐으로서 인문학 중심 교육론과 실무중심 교육론으로 대립되어 있던 언론학 교육계의 논란과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기도 했다. 특히 1940년대 이후 언론학 교육내용에서 이론교육의 비중이 높아지고 또한 교수진에 실무경험이 없는 박사 학위 보유자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인문학 대 실무교육의 논쟁에 다시

이론교육 대 실무교육의 논란이 겹치게 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 한층 치열해진 이 논쟁은 ‘커뮤니케이션 학자(academic communicator)들과 실용적 언론학(pragmatic journalism)을 교육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사활을 건 싸움’(Nelson, 1967, p. 745)이라고 지칭되고 있는데 “우리들은 입으로는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학생들의 언론학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마치 학생들이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직장의 상사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Budd, 1985, p. 24)는 학문적 학자들의 비판에 대해 반면 “많은 언론학 대학에서 신문 관련과목들은 추가과목 아니면 보조과목으로 전락했다(Newspapering is becoming a sidelight, if not an afterthought)”는(Highton, 1967, p. 10) 실용적 학자들의 비판이 대립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초록 차광도(Green Eyeshades) 대 변량분석표(Chi-Squares)의 논쟁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논란에서 맥도걸은 반 세기가 넘는 미국의 언론학 교육은 의학이나 법학처럼 독립적인 전문직 대학의 뒤를 따르지 않고 인문 대학을 모방하다 기대에 미달하게 된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영문학과와 한 부분으로부터 해방되지 오래되었지만 오늘날의 언론학 과목들과 교과과정들은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주요 장애요인이었던 영문학과 교수들보다 언론학에 대해서 더 무지하며 또한/아니면 더 이해심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관리자인 커뮤니케이션 대학이나 스쿨에 의해서 잠식되고 있다(MacDougall, 1973, p. 1).

그는 나아가 “직업훈련을 위한 교과과정은 최종 완성 작품이 어떠한 작품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자질을 갖춘 교수진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하며”(p. 2) 또한 저널리즘의 연구는 아무런 전체나 선입견 없이 시작되지만 사회과학에서의 연구는 연구자가 일련의 가설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어서 연구방식이 서로 다르며 따라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저널리즘적 연구 방법이 더욱 논리적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pp. 8-9).

주로 “실증적이며, 계량적이고,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측정에 초점을 맞춘”(Rogers, 1994, p. 491) 학문적이며 이론적인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대한 비판은 계속 높아져서 헨닝햄(Henningham, 1986)은 다른 학문에서는 교육내용이 바로 “연구되고 이론화되는 것의 일부”인데 반해서 언론학에서는 교육과정의 “학계의 도움 없이 기능을 익힌” 전문언론인들의 실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언론학 교육자의 “학문성(scholarship)은 어떤 면에서는 부산물로서 학계에서의 그들의 위치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행동이며 따라서 기본형식에 있어서 언론학은 애매모호한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다”(p. 8)고 진단하기도 했다.

비슷한 견해에서 로벨(Lovell, 1987)은 “다른 전문직 대학들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순수한’ 연구조차도 궁극적으로는 그 분야의 실무자가 업무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식견과 기술로 연결되나 언론학에서의 학문적 연구는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20여 년이 넘게 조용하게 이어져 왔고 마침내 변량분석과(Chi-square communicologist) 들이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된 원인은 왜냐하면 출판 아니면 소멸(publish or perish)이라는 대학교육 풍조의 특이성 때문”(p. 23)으로 기술하고 있다. 메즈거(Medsger, 1996)는 보다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 세기의 중반 커뮤니케이션 연구교수들이 언론학 교육을 차지한 이후 언론적 심층조사(in-depth journalistic research)—많은 언론인들이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는 방식(type)—는 더 이상 많은 대학에서 인정해주지 않게 되었다. 이 교수들은 그들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언론학 교육을 차지하는 데 이용해왔던 것이다(p. 45).

라고 말해 학계에서의 논란의 파고를 더욱 높아지게 만들기도 했다. 반면 구드(Good, 1984)는 언론학 교육을 위해 전직 언론인을 채용해

은 관행은 “그들이 버리고 온 직업을 젊은이들에게 교육시키게 하는 것”이라며 “그 동안 직업훈련학교이었기 때문에 받은 사죄하듯이, 또 받은 저항하듯이 매달려온 신문업계의 그들로부터 언론학 교육이 벗어나기 위해서는”(p. 27) 언론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역사, 법률, 윤리, 이론 등을 가르치고 기술적 기능들은 신문사에서 배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언론학 교육이 “직업훈련적” 내용과 “업계의 그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론적이며 학문적인 내용의 접목을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언론학 교육과 연구의 학문으로서의 정체성 즉, 분야(field)나 부문(discipline)에 대한 논란은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3) 학문의 정체성

슈람은 그의 회고록에서 복합 사회과학으로서의 인간 커뮤니케이션(human communication) 부문의 미래는 “언론학(journalism)과 언어교육(speech communication)이 단일체로 합쳐지고 전문직업훈련(professional training)은 대학 학부에서 그리고 석사와 박사과정에서는 커뮤니케이션 과정과 효과에 대해서 연구하며 대학원 학생들이 커뮤니케이션 관련 분야로의 신입사원 취업을 위한 기능(entry level skills) 과목들, 예를 들면 인쇄매체(print journalism), 설득(persuasion), 방송(broadcasting) 등을 가르치게 되는 것”으로 예상했는데(Schramm, 1997, p. 157) 이에 대해서 매즈거(Medsger, 1996)는 “이 새로운 움직임—커뮤니케이션 연구—은 누가 언론학을 교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을 근본적으로 바꿔게 하는 것으로서 오늘날까지도 언론학 교육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논란에 변화와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p. 54)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지만 로저스(Rogers, 1994)는 슈람의 견해와 같은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새로운 학과의 창설에 의해서 보다는 최소한 그 초기에서는 기존의 언론학 대학을 잠식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나중에는 보다 점차적으로 그리고 언론학 교육에서 발생했던 Green-Eyeshades 대 Chi-Squares의 갈등이 사라지면 스피치 학과들로 침투해서 그들의 수사학에 중점을 둔 인문학에서 본질적으로 심리학을 기원으로 하는 대인 커뮤니케이션 학과(departments of interpersonalcommunication)로 변화시킬 것이다(p. 476).

그러나 아직까지는 슈람이나 로저스가 예상한 통합의 과정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언론학과나 언론학 대학 또는 커뮤니케이션 대학들은 언론학(radio/TV 영화, 통신 등을 포함), 광고, 홍보, 매스커뮤니케이션,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망라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커뮤니케이션 관련 연구의 이러한 현상을 슈메이커(Shoemaker, 1993)는 "커뮤니케이션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어디에도 있을 수 없기(both everywhere and therefore nowhere)" 때문으로 이것이 바로 "정체성의 위기(crisis of legitimacy)"(p. 146)라고 보고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은 커뮤니케이션, 언론학, 커뮤니케이션 기술, 매스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journalism, communication arts, mass communication) 등의 학문적 부문에서뿐만 아니라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역사학, 법률학 등의 학문적 부문에도 위치할 수 있는 복합 학문적 부문(interdisciplinary discipline)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Dickson, 2000, p. 72).

언론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논란 이외에도 1940년대 이후 계량적이며 과학적인 커뮤니케이션 연구와 교육이 주류를 이루면서 제기되기 시작한 새로운 학문적 비판은 이러한 연구들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매체들은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연구자의 임무는 이 도구를 더욱 잘 파악해서 그 활용을 촉진하는 것"(Lazarsfeld, 1941, pp. 2-3)만을 주요 연구목적으로 함으로써 그밖에 매체나 사용자의 목표 등에 대해서는 소홀하거나 무관심한 행정적 연구(administrative research)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판적 연구(critical research)

는 “기존의 전통적 연구에 반하는 것”(Halloran, 1981, p. 168)으로서 현대 사회에서의 매스미디어와 그 역할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나서(French & Richard, 1994, p. 184) 유럽의 학문적 전통을 언론학에 접목시킴으로서 언론학의 분야와 영역의 한계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언론학 연구와 교육에 걸쳐서 투영되어온 일련의 대립되는 개념들, 실기 대 인문, 훈련 대 교육, 현업 대 학계, 행정적 대 비판적 연구 등등의 개념들은 언론학의 분야와 영역을 넓히고 확대하는 데에는 기여해왔으나 반면 학문으로서의 정체성과 일관된 체계의 확립에는 커다란 장애가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대립되는 개념들과 관련된 논란의 밑바탕에는 “전문인 집단들의 이해와 전통적 계급의식의 반향”(French & Richard, 1994, p. 180) 등이 포함되어 있어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3. 언론학 교육에서의 이론과 현실

언론학 교육과 연구가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 속에 다른 학계로부터 정당한 학문 분야로 인정받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 뉴스롬(Newsom)은 “다른 학문으로부터 이론을 빌려오는 경향과 내부 분열” 등이 그 원인이며 특히 “매스미디어 교육기관들이 특정 산업들과 연결해서 그 속에서 직업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고 이러한 실패들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언론학과 매스커뮤니케이션 전 분야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Newsom, 1985, p. 23)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내부 분열과 산업계와의 연계 부재의 원인으로 프렌치와 리차드(French & Richards)는 “전문가 집단들의 대립되는 이해(opposing sets of interests)”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별에 반영됐던 전통적인 사회적 계층 구분의 반향인 실제에

대한 이론의 특권화(privileging of theory over practice)"(1994, p. 179)를 들고 있다.

그 동안의 언론학 연구와 교육은 커뮤니케이션 과정과 그 효과에 대한 이론들과 그 이론에 대한 계량적 검증이 주류를 이어왔고 비판적 연구와 정책연구가 새로운 연구분야와 다른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와 관련해서는 기술, 기능, 경험 등을 훈련(training)으로 연마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론과 관련해서는 지식을 교육(educating)하고 연구(research)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연구와 교육은 현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능력과 지식보다는 비판적이며 이론적인 연구와 교육에 치중해 왔고 결과적으로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낳게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의 교수진 역시 그 분야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어 “육체노동의 실무훈련 과목들”은 차광모(Green Eyeshades)가 그리고 보다 명분 있는 개념과 이론과목들은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있는 변인분석표(Chi-Squares)들이 가르칠 뿐만 아니라 “주요 학사행정인 임용, 승진, 업무분담, 교육과정개발 등의 업무들도 이들이 주로 담당”(French & Richard, 1994, pp. 180-181)하고 있어 언론학 연구와 교육에서 이론과 실제의 거리는 보다 더 넓어져 왔고 분열과 갈등은 더욱 첨예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은 학문적이며 이론적 교육 위주의 우리나라의 언론학 교육과 연구에서 특히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재경은 “신문방송학은 무엇을 가르치고 어떠한 사람을 배양하는 영역인가에 대한 인식에서 학교와 학생, 그리고 언론현업 사이의 차이가 심각하게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교과과정과 교수진의 구성은 “학문영역 중심의 백화점식 배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압도적으로 개념과 이론 중심의 교과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1999, 27쪽). 그리고 이러한 이론중심의 교육으로 인해서 학생들로부터는 불만을, 현업계로부터는 비판을 받고 있고 또한 학계 내부에서도 이러한 불만과 비판에

대한 개선의 논의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언론학 전공 학생들에 대한 인턴십 활성화에 대한 논의(김숙현, 1999, 16-19쪽), 겸임 교수제 활용에 대한 논의(이재경, 1999, 26-29쪽), 실무 위주의 학부교육과 이론 중심의 대학원 교육을 위한 언론학 교육 이원화를 위한 제안서(정우, 1999, 8-11쪽), 그리고 대학의 방송제작 실습교육에 대한 연구(은혜정·장은영, 2000, 257-299쪽) 등은 이러한 이론 중심의 언론학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과 방안에 대한 모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쟁점 및 제안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에서 간과되고 있는 보다 근본적이 문제점은 대부분의 경우 프렌치와 리차드가 지적한 “대립되는 전문가 집단의 이해”와 “전통적인 사회계층 구분의 반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목적과 관련된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 대 “인문학적(이론적) 소양을 갖춘 전문인” 양성의 논란, “전문직업인” 대 “연구, 교수인력” 양성과 관련된 논란,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기술훈련” 대 “이론교육” 과목들의 비율과 관련된 논란, 그리고 교육방법에서 교수진의 임용과 학사 행정에서의 “실무 경력” 대 “학위 보유”의 차별과 관련된 논란 등이 그 동안 여러 가지 연구 조사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어져온 이유는 바로 대학에서의 언론학 연구와 교육이 “집단의 이해”와 “전통적 고정 관념”의 그늘로부터 자유스럽지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예로서 인턴십의 경우 “학생들에게는 현장감을 갖게 하고 또한 언론사들은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이점 때문에”(김숙현, 1999) 교육적, 실용적으로 바람직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인턴십 제도는 학계와 정부의 요청에 대한 언론사들의

협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언론학 졸업생들의 취업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의 하나 이기 보다는 학생들의 실무적 교육에 대한 요구의 일부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방편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겸임교수제는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전임교수진의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부분적이며 임시적 대응책”(이재경, 1999, 29쪽)으로 채택될 수도 있는 제도이나 반면 실무에 대한 교육은 담당하지만 임금 절감과 함께 “학과의 일상 업무나 또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French & Richard, 1994, p. 192) 방안으로 이용되는 문제점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언론학 교육의 이원화 제외와 관련해서는 슈람의 견해에 대한 메즈거의 반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집단 이해와 고정관념이 바탕에 깔린 학문 중심, 이론 우선의 언론학 교육과 연구의 보다 큰 문제점은 오늘날과 같이 매체관련 기술이 급속히 발달되고 확산되는 변화의 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과 현실에 대한 수용능력과 적응능력이 현격히 결여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케이블 텔레비전을 비롯한 새로운 미디어의 도입을 위한 정책 결정 과정과 법률개정 과정에의 시행착오와 혼란에 대해서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했던 학계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매체산업에서의 변화를 연구와 교육에 적절하게 반영시키는 데에 실패한 것도 학계의 이론 중심적 경직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언론학 연구는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리고 이를 기본으로 한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에서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는 변화하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언론학이 무엇을 연구하며 어떠한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하는가의 문제들은 대학에서의 언론학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 없는 논란의 주제가 되어왔다. 이러한 비

슷한 주제의 논란이 한 세기가 넘게 이어지는 속에서도 언론학 관련 연구와 교육이 오늘날과 같이 확대되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대와 사회, 그리고 학문의 변화 속에서 언론 산업의 구조와 대학의 기능과 역할도 함께 따라서 변화해 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언론학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그 기본 목적, 교육 내용, 그리고 교육방법에 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특히 요즘과 같이 매체 관련 기술의 혁신과 확산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서는 더욱 가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서 경계해야 할 점은 논의의 초점이나 주장이 집단적 이해나 계급 의식의 반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스러울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언론학 교육과 연구가 이론 중심적이며, 학문 중심적인 경우, 그리고 산업계와의 관련이 현저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논란들은 새로운 시대에서 필요로 하는 언론학의 정체성과 올바른 교육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되기보다는 명분을 위한 형식적 논의가 될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숙현 (1999. 5). 인턴하느니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 낫다(?) 《신문과 방송》, 제341호, 16-19.
- 김인규 (1999. 5). 대학에서부터 윤리교육 철저히. 《신문과 방송》, 제341호, 12-15.
- 김창룡 (1997. 10). 집중적 실습교육의 필요성. 《저널리즘 비평》, 제22호, 53-56.
- 서정우 (1999. 5). 특화된 교육, 학부, 대학원 차별화가 과제. 《신문과 방송》, 제341호, 8-11.
- 서정우 (1997. 10). 언론학의 어제와 오늘. 《저널리즘 비평》, 제22호, 39.

- 신윤진 (1998. 6). 인력수요에 맞춰 특화된 교육을. 《신문과 방송》, 제330호, 67-71.
- 이재경 (1999. 5). 겸임교수제 제도적 뒷받침 필요. 《신문과 방송》, 제341호, 26-29.
- 오수정 (1999. 5). 신방과 전공해서 유리한 것도 없더라. 《신문과 방송》, 제341호, 20-25.
- 은혜정 · 장은영 (2000). 대학의 방송제작실습교육 현황에 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14-1호, 257-291.
- 조동시 (1999. 5). 총 75개 대학 86개 학과, 90년 이후 급증. 《신문과 방송》, 제341호, 30-33.
- 차배근 (1997. 10). 정보화 시대에서 언론학 교육의 방향과 과제. 《저널리즘 비평》, 제22호, 44.
- Budd, R. W. (1985). Its time to set new direction in communication education. *Journalism Educator*, 40(3), 24-27, 44.
- Carey, J. W. (1978). A plea for te university tradition. *Jouranlism Quarterly*, 55(4), 846-855.
- Dennis, E. E. (1988). Whatever happened to Marse Robert's dream? *Garnnet Center Journal*, 2, 1-22
- Dickson, T. (2000). *Mass media education in transition*. Mahwah, New Jersey: LEA.
- Dressel, P. L. (1960). *Liberal education and journ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Teachers College.
- Frasca, R. (1995). Benjamin Franklin's plan for moral reformation of a scurrilous press. Paper presented at the convention of the 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Washington, DC.
- French, D., & Richards, M. (1994). Theory, practice and market forces in Britain. In D. French & M. Richards (Eds.), *Media eucaion across Europe*. New York: Routledge.
- Good, H. (1984, July/August). Where dinosaurs roam. *The Quill*, 27.
- Henningham, J. P. (1986). An Australian perspective on educators as researchers. *Journalism Educator*, 41(3), 8-12.
- Herring Study Traces Growth of Journalism Instruction. (1956). *Journalism*

- Quarterly*, 33, 362-363.
- Highton, J. (1967, February). Green eyeshades vs. Chi-Squares. *The Quill*, 10-13.
- Jandoli, R. J. (1957) Journalism education and social sciences. *Journalism Educator*, 59(1), 16-25.
- Lazarsfeld, P. (1941). Remarks on administrative and critical communication research. *Studies in Philosophy and Social Sciences*, 9, 2-16.
- Lee, M. L. (1918). *Instruction in journalism in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U.S. Bulletin No. 21). Washington, DC: Department of Interior, Bureau of Education.
- Lovell, R. (1987, October). Triumph of the Chi-Squares. It is a hollow victory. *The Quill*, 22-23.
- MacDougall, C. D. (1973, August). What journalism education should be all about.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Fort Collins, Co.
- Medsger, B. (1996). *Winds of change: Challenges confronting journalism education*. Arlington, VA: The Freedom Forum.
- Mirando, J. A. (1995). The first college journalism students: Answering Robert E. Lee's off of a higher education. Paper presented at the convention of the 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Washington, DC.
- Nelson, H. L. (1967). Some thoughts for the future of AEJ. *Journalism Quarterly*, 44, 745-748.
- Newsom, D. A. (1985). Journalism/mass comm as an academic discipline. *Journalism Educator*, 40(3), 44.
- O'Dell, D. (1935). *The history of journalism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Paisley, W. (1984). Communication in the communication. In B. Dervin, M. J. Voight (Eds.), *Progress in the communication sciences* (pp. 1-43). Norwood, NJ: Ablex.
- Pulitzer, J. (1904). The College of journalism. *North American Review*, 178(50), 641-680.
- Rogers, E. M. (1994). *A history of communication study: A biographical*

- approach*. New York: The Free Press.
- Rudolph, F. (1962). *The American College and University: A History*. New York: Vintage Books.
- Schramm, W. (1997). *The beginning of communication study in America: A personal memoir*. Thousand Oaks, CA: Sage.
- Shoemaker, P. J. (1993). Communication in crisis: Theory, curricula, and power.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146-153.
- Steiner, L. (1994). Career guidance books assess the value of journalism education. *Journalism Educator*, 49(1), 49-58.
- Sutton, A. A. (1945). *Education for journalism in the United States from its beginning to 1940*. Evanston, IL: Northwestern University.
- Tankard, J. W. Jr. (1990). Wilbur Schramm, definer of a field. In W. D. Sloan (Ed.), *Makers of the media mind: Journalism educators and their ideas* (pp. 239-24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Wilcox, W. (1959). Historical trends in journalism education. *Journalism Educator*, 14(3), 2-7, 32.
- Williams, S. L. (1929). *Twenty years of journalism education: A history of the School of Journalism of the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MO: E. W. Stephens Publishing Co.

Theory and Practice in Media Education

Woochun Song
(Hallym University)

Discussions and debates over media education abound in Korea as the number of both institutions that provide media related education and students enrollment for these programs increases rapidly in recent years. In spite of this rather impressive expansion, however, many have raised serious questions about media education of Korea for its not being able to meet the need of the industry and students, and, moreover, inability to face the challenges brought by new communication related technologies. Who teaches What for what purposes are some of the fundamental questions underlying these heated debates and discussions. To understand these rather complex and interrelated issues more clearly, it is attempted to delineate the nature of these debates by exploring the evolutionary process of media education. The issues related to debates over purposes of media education, curriculum, and faculty qualification have changed through the history of media education, but the nature of the debates, that is the struggle between professionalism and academicism, or the tension between practice and theory, has not. Upon this understanding, some argue that what distinguishes opposing sets of dichotomies, such as skills vs. knowledge, training vs. education, know-how vs. know-why, professional vs. academic, practice vs. theory, is more a reflection of social class division and group interests which have privileged theory over practice than a rational scholastic distinction. In addition, it has been often pointed out that the media studies have failed to establish ties with specific industries, and furthermore academic studies seriously lack solid theoretical and practical bases.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leaders of the industry had contributed much for the initiation of journalism education in a college setting. However, once inaugurated, the process of its evolution has depended heavily on academicians. In a country like Korea, where academic and theoretical orientation is much stronger, these problems of media studies and education are even more acute. In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academicians and educators be more open-hearted to the realities of

changing world, practices of the industries, and recruitment of professionals and practitioners to fill the gap between practice and theory, for the sake of the future of media studies and education.

[Keywords: journalism, media education]